

농촌진흥청 연구사 3명, 한국양봉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최용수(꿀벌질병 바이러스), 한상미(봉독), 김혜경(밤꿀) 연구사
- 잠사양봉소재과, 한국양봉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 잠사양봉소재과 연구사 3명(최용수, 한상미, 김혜경)이 지난 1월 28일 (목)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제25차 한국양봉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논문상은 매회 열리는 양봉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성과에 대해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이다. 올해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된 학술회에는, 7편의 우수논문상 중 농진청이 3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내의 동양종·서양종 꿀벌에서 진단된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은 최용수 박사는 “꿀벌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키트 개발을 통해 병해충의 조기진단 및 친환경 방제로 양봉농가에 현실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내산 봉독의 여드름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수

상한 한상미 박사는 양봉산업과 관련하여 벌꿀의 기능성 연구를 포함한 천연항생제 개발 등 다양한 양봉산물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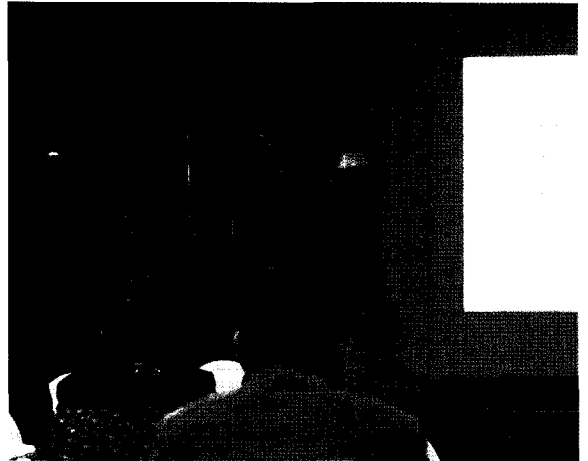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 지역별 밤꿀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혜경 연구사는 얼마전 크립꿀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양봉업계에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는 국내 양봉산업 및 잠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얼마 전 특허 출원한 봉침액 생산과 벌꿀가공기술은 현재 실용화를 앞두고 있어 양봉산물의 활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진청 김재수 청장은 “앞으로 농진청은 지속적이고 실용 가능한 연구로써 양봉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양봉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수익 창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봉**



▲ 농촌진흥청 잠사양병소재과 이광길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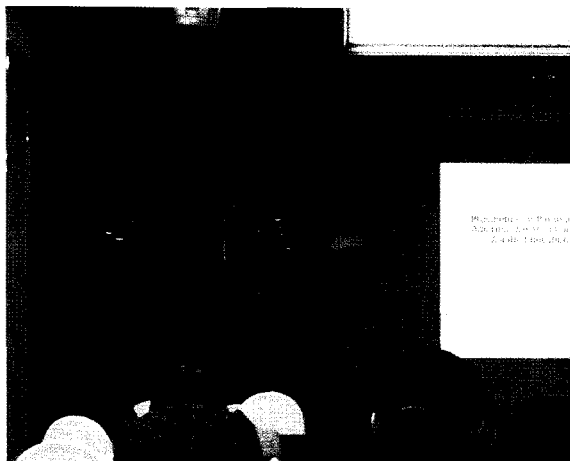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이만영 양병연구실장



▲ 우수논문 수상자 농진청 한상미 연구사(우)



▲ 양봉학회 우수논문상 시상식 현장



▲ 우수논문 수상자 농진청 최용수 연구사 발표 중



▲ 우수논문 수상자 농진청 김혜경 연구사 - 발표 중